

성명	조연주	수험기간	2023.03~2025.07.
학교	고려대학교	전공	생명공학부
키워드	수석 기득 상표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62회 변리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조연주입니다. 저도 수험 기간동안 선배 합격자분들의 합격 수기를 참고하며 공부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다르지만, 제 합격 수기가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5점	97.5점	75점

-민법- <점수: 95점>

【강의 및 교재】

강의: 김동진 강사님 T-pass (기본강의, 중급강의, 문제풀이 강의, 핵심급소체크 강의)

교재: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

【시기별 공부】

1~3월	4~6월	7~9월	10~12월	1~2월
기본강의	기본강의 수강 기본서 1회독	중급강의 수강 기본서 1회독	문제풀이강의 수강 기 본서 회독 문제집 회독	핵심급소체크 수강 기본서 회독 문제집 회독

3월~5월에는 기본강의를 수강하며 복습했고, 완강 후 6월 한 달 동안 기본서를 정독(1회독)했습니다.

7월~8월에는 중급강의를 수강하며 복습했고, 완강 후에는 기본서를 1회독했습니다.

10월에는 문제풀이강의를 수강하며 문제집(민법공방연습)을 풀었습니다.

11월부터 2월 시험 전까지 계속해서 기본서와 문제집을 회독하고, 틀린 문제 및 어려운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회독 방법】

1. 기본강의 수강 기간

월요일~토요일 오전에 기본강의 1회(3강)씩 수강했습니다. 수강 전에는 전날 배운 부분을 가볍게 복습했고, 강의 수강 시에는 연필로 밑줄을 그으며 수강했습니다. 수강 후에는 1~2시간 정도 배운 내용을 밑줄 위주로 정독하고 강의마다 올려주시는 OX퀴즈 복습자료를 풀어보면서 복습했습니다.

기본강의 완강 후 6월 한 달 동안 1회독을 진행할 때에는 하루 2~3시간동안 기본서를 정독했습니다.

회독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기본강의 진도를 참고**하여 정했습니다. 하루에 기본강의 **2회분 범위**를 밀줄 위주로 정독했습니다.

2. 중급강의 수강 기간

기본강의 수강 때와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강하며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완강 후에도 6월과 동일하게 하루에 기본강의 **2회분 범위**를 정독했습니다.

3. 문제풀이강의 수강 기간

문제풀이강의 진도에 맞춰 전날에 해당 파트의 **기본서**를 읽는 방법으로 **예습**을 하며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문제집을 예습하지는 않았고, 강의 수강 후에 복습할 때 빠르게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4. 이후 회독방법

어렵고 복잡한 파트 위주로 먼저 천천히 회독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서와 문제집을 항상 같이 회독하였는데 **전날 기본서를 먼저 정독**하고, **다음날 해당 부분을 풀이**하는 방법으로 회독 진행했습니다. 기본서 회독과 문제집 풀이 시간은 1:2 정도 소요됐습니다. 문제집을 풀이할 때 틀린 문제는 V표시를 하고, 조금 헛갈렸던 문제는 C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1회독을 계획하였고, 이후 20일, 14일, 10일, 5일로 기간을 줄였습니다.

2월에 마지막 2회독의 경우 기본서는 그대로 회독하되, 문제집은 미리 표시한 문제(틀린 문제 및 헛갈리는 문제)위주로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기본서와 최신판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7.5점(20/9/10)>

【강의 및 교재】

-특허법

강의: 타 학원 강사님 (기본강의, 판례강의, 조문특강)

교재: 서브집핸드북, 기출문제집

-상표법

강의: 타 학원 강사님 (기본강의, 판례강의, 최종정리강의), 김영남 변리사님 (핵심이론강의)

교재: 핵심이론정리 교재,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디자인보호법

강의: 김웅 변리사님 (기본강의, 문제풀이강의, 최종정리강의)

교재: 기본서, 기출문제집

【특허법】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이후 조문특강,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 수강하면서 기본서는 1회독 정도만 한 후, 서브집핸드북이라는 조문집과 판례노트를 다회독했습니다. 조문집의 경우 암기하면서 천천히 회독하였고, 판례노트는 밀줄만 빠르게 회독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총 4~5회 풀이했고, 객관식문제집은 한 번만 빠르게 풀었습니다.

【상표법】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강의, 중급강의(판례강의) 및 최종정리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후 상표법 이해가 부족하다

고 생각해 김영남 변리사님의 핵심이론정리 강의를 수강하고 핵심이론정리 교재를 회독하고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도 구매하여 풀이했습니다. 핵심이론강의교재를 회독교재로 정하여 총 6-7회 정도 회독했고, 기출문제집은 3-4회독, 객관식문제집은 2회 풀이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 문제풀이강의, 최종정리강의를 수강했고, 기본서 3회독 및 기출문제를 4-5회독했습니다.

【조문 암기】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회독 교재를 조문집으로 했기 때문에 회독하면서 암기했고,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김영남 변리사님의 조문 암기 스터디를 활용하여 빈칸 교재로 암기했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5점 (8/3/10/9)>

【강의 및 교재】

물리, 화학, 생명과학: 타 학원 강사님 강의 및 교재

지구과학: 박준희 강사님(기본강의, 문제풀이강의) 및 기본서

【물리】

물리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3월부터 민법과 함께 물리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매일 공식을 외웠고, 교재에 있는 문제와 객관식 문제집을 풀이하며 공부했습니다. 자신 없는 과목이었기에 문제풀이강의도 추가로 수강했고,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2-3시간씩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공식집으로 **공식**만 외웠습니다.

【화학】

화학의 경우 베이스는 있는 편이었으나,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었기에 4월부터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이후 문제풀이강의 및 연속모의고사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물리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문제풀이를 하며 시간을 투자했고, 시험 전날에는 **공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생물】

전공과목이지만 졸업한 지 3년 이상 지났었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그 후 기본서는 2회독했고, 객관식 문제집은 1회 풀이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최종정리교재를 구매하여 1회독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최종정리교재만 빠르게 훑었습니다.

【지구과학】

기본강의 및 문제풀이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서에 문제도 함께 수록되어있었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문제도 함께 풀이했습니다. 기본서(이론과 문제) 및 필기노트를 총 3-4회독 하였고, 추가로 수록된 연도별 기출문제는 3회 풀이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필기노트**만 회독했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반까지 공부했고, 공부시간은 평균 11시간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집에 가서 했는데, 식사 시간 때 너무 많이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 1시간 30분 이내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도록 착석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집과 독서실을 왕복하는 시간에는 물리 공식을 암기했고, 시험 직전에는 김동진 강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민법 조문 영상을 들었습니다.

【체력 관리】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집에서 점심 저녁식사를 하다보니 독서실과 집을 왕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

1. 민법과 산업재산권법

법과목의 문제집을 풀이할 때에는 **속도감 있게** 풀이하되, **모든 선지의 정오를 판단**했습니다. 오지선다 문제집의 경우에 답을 알더라도 모든 선지를 풀이했으며 답은 맞았으나 조금 헛갈리는 지문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크를 해놓았다가 풀이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모든 선지를 확인**하면서 풀이했고 **2회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2. 자연과학

자연과학의 생물과 지구과학은 속도감 있게 풀이하며 공부했고, 물리와 화학의 경우에는 20분 정도의 시간을 맞추어 풀이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 순서로 풀이했는데, 생물과 지구과학을 10분동안 풀이하고, 50분 동안 물리와 화학을 풀이했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59점	57점	67.66점	56.66점

-민사소송법- <점수: 59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이창한 강사님 (기본강의, 사례강의, 기초GS, 실전GS B)

기득: 이창한 강사님 (심화강의, 기출강의, 실전GS A, B) 및 타 학원 단권화강의, 실전GS

▪ 교재

동차: 통합민사소송법, 사례집, 기출핸드북

기득: 통합민사소송법, 사례집, 기출핸드북, 타 학원 요약서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타 학원 A (온라인)	이창한 A	타 학원 B	이창한 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동차 기간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강의 및 GS를 수강하며 공부했습니다. 1차 수험기간 동안 민사소송법을 미리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차에 진입한 후, 3월에는 기본강의, 4월에는 사례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고, 암기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는 통합을 정독, 암기하면서 주말에는 기초GS를 수강했습니다. 기초GS 수강 전 미리 기출 핸드북을 빠르게 읽었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으로 암기하여 책을 보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6월에는 사례집을 회독하면서 실전GS B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 때에도 책을 보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는데, 논점도 거의 찾지 못하고 암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7월에 학원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그때서야 민사소송법 답안을 겨우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차 점수: 52점)

▪ 기득 기간

1. GS 시즌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통합을 정독**하였고, **사례집**의 문제에 대해 **목차**를 잡아보면서 회독했습니다. 통합과 사례집의 회독으로 민사소송법의 이해는 어느 정도 되었으나, 암기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11월에 기본서를 요약서로 바꾸었고, 타 학원 강사님의 단권화 강의를 수강하며 **요약서를 정리**했습니다.

12월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심화강의**를 수강하며 통합과 사례집을 다시 정독하였고, 1월에는 기출핸드북 강의를 수강하며 기출문제를 회독하며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사례집과 기출핸드북을 풀이할 때에는 목차만 간단히 잡고 답안을 읽는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이 시기에 통합과 사례집, 기출핸드북의 내용 중 **요약서에 없는 내용을 옮기는 작업(단권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모두 옮기기 어려운 부분은 **통합에 포스트잇으로 체크**해 놓았습니다. 2월에는 요약서를 2회 회독하며 하루에 한 챕터씩 목차와 키워드를 암기했습니다. GS 시즌 전까지는 답안을 쓰지 않았습니다.

2. GS 시즌

3월 GS시즌부터 매월 GS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보통 주말에 GS수업 수강하고 월요일에는 GS를 복습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암기하고 회독했습니다.

7월에는 실전연습 겸 학원 모의고사를 이용하여 쓰기감을 유지했고, 요약서만 회독했습니다.

[회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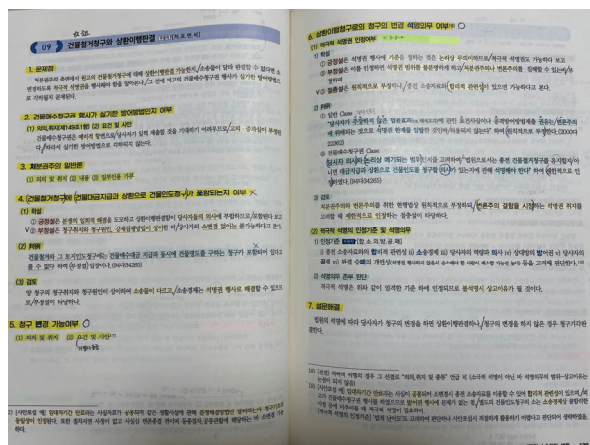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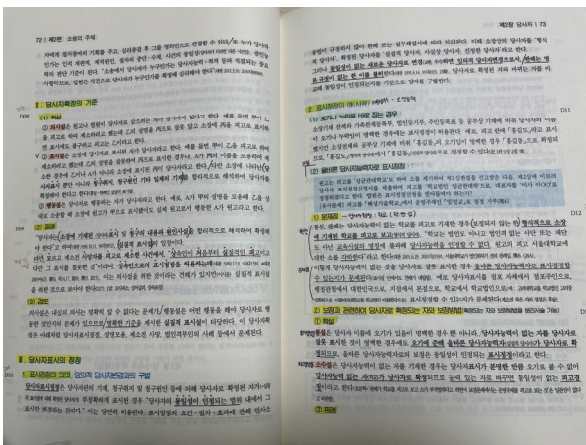
1. 기본서

통합은 이해용으로 활용하고 요약서는 암기용으로 활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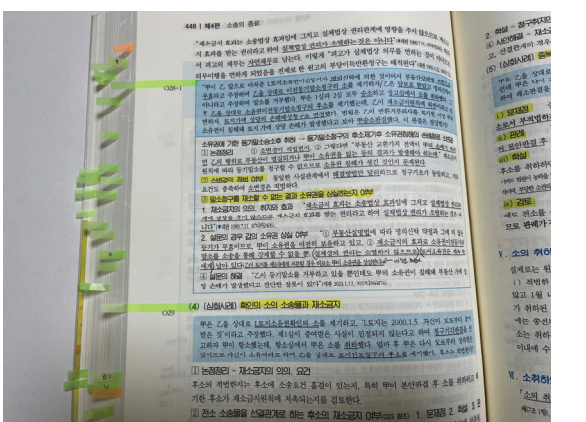
기본서를 정리할 때에 사용할 **형광펜의 색**을 정하였습니다. 저는 목차를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순서로, 판례 키워드는 하늘색, 그 외의 키워드는 주황색, 학설은 분홍색으로 정하여서 칠하면서 정리했습니다.

회독 시에는 주제별로 **목차, 학판검, 키워드 순서**로 암기하려고 노력하며 정독했습니다. GS시즌에는 암기스터디도 병행했기 때문에 암기스터디 진도에 맞춰 요약서를 암기,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에 없는 내용을 대비하기 위해 요약서에 없는 내용을 통합에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놓고 그 부분만 발췌독하는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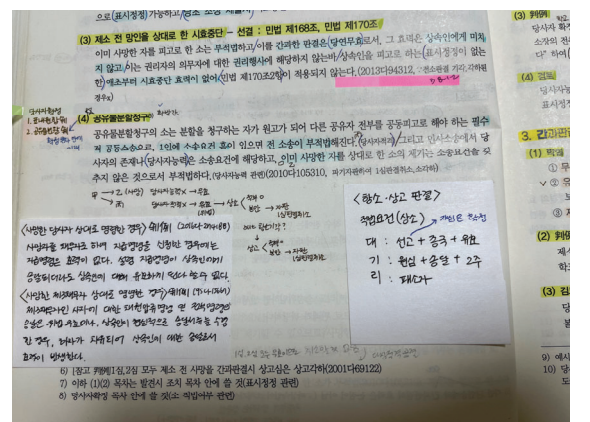
-형광펜 활용



-통합에 포스트잇으로 표시



-요약서에 없는 내용 옮겨 적기



2. 사례집

문제를 읽고 **목차를 간단히 잡아보는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자주 누락하는 목차, 답을 틀리는 문제 등을 체크하고 **오답노트**를 간단히 작성하면서 암기했습니다. 사례집의 오답노트는 따로 읽어보거나 하진 않았고,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용도로만 활용했습니다.

【암기 방법】

전화 암기 스테디를 활용하여 암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주제별로 논점과 학판감을 모두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라 생각하여 요약서를 **통암기**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6p-17p정도씩 범위를 정하여 암기하고 전화로 목차와 내용을 모두 읊었습니다. 통암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나, 돌이켜보면 그 덕분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 <점수: 57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 박형준 변리사님 (기초플러스 강의, 실전B, 최종정리강의)

기득 : 박형준 변리사님 (판례강의, 실전A, 실전B, 최신판례강의) 및 타 학원 실전GS

▪ 교재

동차 : 준특허법 기본서

기득 : 준특허법 mini(준특허법plus 참고), 판례집, 사례집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박형준 A	타 학원 A	타 학원 B1	박형준 B 타 학원 B2(온라인)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3~4월에는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초플러스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5~6월에는 실전B를 학원에서 수강했습니다. 3월부터 하루에 총알 20개씩 꾸준히 암기했고, 기본서는 중요한 것만 이해하면서 정독했습니다. GS를 수강할 때는 5월까지의 기본서를 보면서 답안을 작성했고, 6월부터는 책을 보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특허법의 이해도가 높지 않았고, 동차 때 시험이 어렵게 나온 편이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차 점수: 42.66점)

▪ 기득 기간

1. GS 비시즌

10월부터 준특허법 플러스를 정독하며 동차 시절의 기본서 필기를 옮기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1월에는 **판례강의**를 수강하며 **판례집**을 1회 회독했는데, 판례강의를 통해서 특허법의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사례집** 상,하를

1회 풀이하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했습니다. 존특허법 플러스를 1월까지 3회 정도 회독했는데, 회독 범위를 계획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존특허법 mini로 기본서를 바꾸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암기를 하려 노력하진 않았으나, 존특허법 mini를 정리하고 정독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GS 시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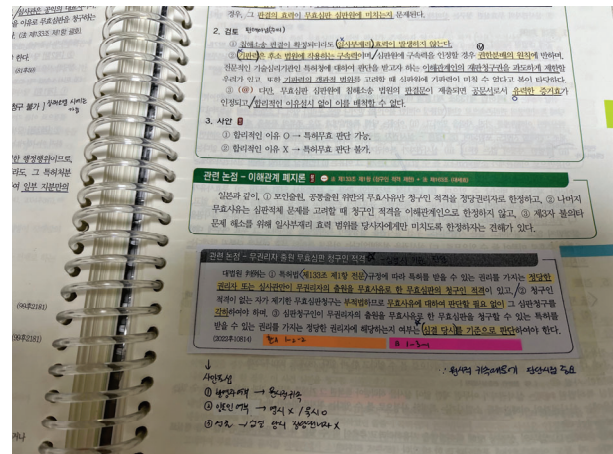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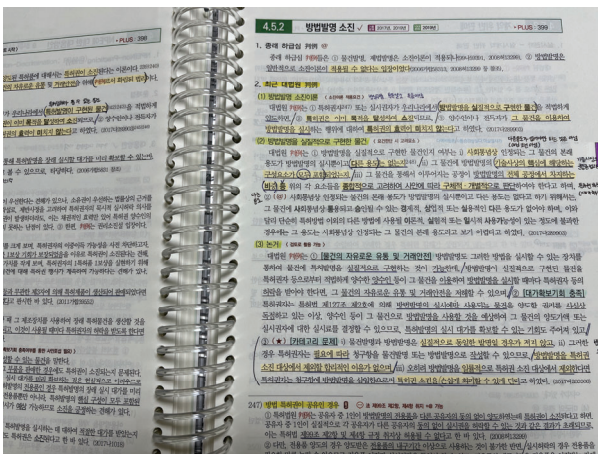
3월부터 주말마다 실전GS를 학원에서 수강하고 주중에는 기본서를 회독하며 총알을 암기했습니다. 판례집의 경우에는 공부를 마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거나 기본서의 판례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때 보았습니다.

【회독 및 암기】

1. 기본서

GS 비시즌에 기본서를 정리할 때에는 총알에 있는 중요 목차는 노란색, 연두색 등으로 칠하며 정리했고, 본문은 볼펜을 이용해 밑줄과 괄호로 표시하면서 정독했습니다. GS 시즌에는 암기스터디도 병행했기 때문에 **암기스터디 진도**에 맞춰 회독했습니다. 총알 5p 기준으로 암기스터디의 진도를 정했는데, 그 진도에 맞는 기본서 범위를 정독하는 방법으로 회독했습니다. 회독할 때에는 총알의 내용은 암기하고, 그 외의 내용은 정독, 참고 표시가 있는 부분은 빠르게 훑었습니다.

- 기본서 정리



2. 판례집

판례집에 수록된 도식화 자료를 보고 논점을 체크하고 판시 부분은 정독했고, 그 외의 부분은 빠르게 회독했습니다.

GS 비시즌에는 모든 판례를 1회독했고, GS 시즌에는 별 3개 이상의 판례만 1회독했습니다.

3. 사례집

문제의 목차를 잡아보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회독했습니다. 이후에는 GS강의를 수강하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례집을 더 보진 않았습니다.

【암기 방법】

GS비시즌에는 혼자 기본서를 정리하고 정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를 했습니다. GS시즌부터는 주중 전화 암기 스터디로 총알 5p씩 암기하여 전화로 물어보고 답했습니다. 총알 5p에 해당하는 기본서 범위를 체크하고 그 부분을 정독하면서 암기했습니다.

-상표법- <점수: 67.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타 학원 강사님 (기본강의, 사례강의, 실전A, 실전B) ,
기득: 한경훈 변리사님 (실전A, 실전B), 타 학원 강사님 (판례강의, 실전A, 실전B)

▪ 교재

동차: 타 학원 기본서, 사례집, 판례보충자료, 기득: 타 학원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한경훈 A	타 학원 A	한경훈 B (온라인) 타 학원 B1	타 학원 B2(온라인)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3월에 기본강의를 온라인으로 배속을 높여 빠르게 수강함과 동시에 조문 의의 및 취지와 판례의 두문자를 암기했습니다. 4월부터는 사례강의를 수강하면서 사례집 문제에 대해 목차를 잡아보고 답안작성 방법을 익혔습니다. 5월부터 실전GS A와 B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책을 보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고, 기본서와 판례보충자료를 다회독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동차 점수: 57.66점)

▪ 기득 기간

1. GS비시즌

9월부터 전년도 **판례강의**를 수강하며 **판례집을 회독**했습니다. 10월부터 2월까지 기본서는 2회독 판례집은 3-4회독했습니다.

2. GS 시즌

3월부터 주말에는 GS강의를 학원에서 수강했고, 주중에는 암기스터디 진도에 맞추어 기본서와 판례집을 회독하고 중요판례를 암기했습니다. 5월 GS강의를 수강하면서 사례풀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사례집에서 어려웠던 사례 문제에 대해 목차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회독 방법】

상표법의 경우도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암기스터디를 병행했기 때문에 **암기스터디의 진도**에 맞추어 기본서 및 판례집의 회독 범위를 정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사안포섭이 중요하다 하여 **기본서**는 빠르게 **속독**했고, **판례집**은 도식화 자료를 참고하며 꼼꼼히 **정독**했습니다. 다만, 시험 전날에는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GS비시즌에는 암기를 따로 하지 않았고, 3월부터 주중 전화 암기 스터디를 통해 암기했습니다. 초반에는 조문 의의 및 취지와 판례 두문자를 암기했고, 이후에는 판례요약파일을 활용하여 **중요판례를 암기**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56.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김웅변리사님 (기초GS, 실전GS)

기득: 김웅변리사님 실전GS, 타 학원 리마인드강의

▪ 교재

동차, 기득: 김웅 변리사님 통합 기본서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	-	김웅 실전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4월에 김웅변리사님의 기초GS를 수강하였고, 5월에는 매일 단문 2개씩 암기했습니다. 6월에는 실전GS 수강하며 GS 진도에 맞추어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도 기초, 실전에서 책을 보지 않고 답안 작성했습니다. (동차 점수: 65점)

▪ 기득 기간

동차 때 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니, 4월까지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5월에 타 학원의 리마인드강의(6강)을 수강하고 5월 중순부터 김웅변리사님의 통합서브 기본서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회독했습니다. 6월에 실전GS 수업을 수강하면서 수업 진도에 맞춰서 기본서를 **중요한 단문 위주**로 빠르게 회독했습니다.

【회독 및 암기 방법】

A, B급 주제의 경우 **목차와 키워드를 암기**하며 본문을 속독했습니다. C급 주제의 경우에는 목차와 키워드만 확인하고 넘어 갔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0페이지	약 22자	1.목차 사이에는 엔터O 1.목차 사이에는 엔터X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20페이지			
상표법	20페이지			
선택과목	18페이지			

【글씨 노하우】

글씨를 예쁘게 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글씨체가 답안의 인상을 좌우한다 하여 좋은 인상을 주고자 글씨를 더욱 신경써서 작성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으나, 필속이 느려지고 손도 아파서 적당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타협점을 찾아 작성했습니다.

- 답안 초반 (1페이지)

1쪽

18.5

<Sam-1>
I. 결론
1. 문제의 이해 0.5
피고인 피고인을 비하는 것은 인위적 당사자 변경으로서 명분의 귀결없는 인위적 당사자 변경 허위 및 피고 판결 개복을 정한하여 무의 신빙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명문 규정 없는 인위적 당사자 변경 여부 - 2점 2.5
(1) 인위적 당사자 변경이란 당사자 존속의 증명성 없는 다른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정
① 증명성은 당사자 편의 및 신빙정체를 시가여 기용하라 하고 ② 부정성은 불권좌지연 등을 이기근 부정한다.
(3) 취지
판시정정을 선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증명성 있는 자신 변경되거나 질서적 증명성 이변과를 주니는 같은 허용될 수 있다 하며 부정성 인정이다.
(4) 결론
명문의 귀결없는 인위적 당사자 변경은 본 소송의 결과 있고 법원 인정성상 부정성 타사이다.
(5) 사안

- 답안 후반 (16페이지)

16쪽

사유권 집행의 배제를 주장하는 것인데, 상계권 행사 가 정지(의사유로 정지)하는 것인데.
2. 주장의 범위
집행권은 기판력과 주장의 범위 정지하므로. 정지 사유 모두 무. 2로 주장의 범위 정지하다.
3. 상계권 성립 여부 4.5
(1) 시작 범위
원칙적 사유는 변론 정지 무. 2로 사유인 것은 요건 은 상계권이 성립되는지 문제이다.
(2) 취지
① 상계권은 신권성은 민법이 가진 형성권 행사시기 요인이 단독으로 또는 바 형성권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하고 ② 상계권 성립은 법원이나 상 도 성립된다 하고 ③ 정황성은 당사자가 형성권 양한 사유(인) 성립된다 하고 ④ 상계권(인) 행사(의사)는 상계권은 예외적. 즉 주장의 이로 시작된다 성립된다 하는 것이다.
(3) 취지
1) 제재권. 취소권 등 형성권 제재권 행사로 정지 변론 정지 무. 2로 인정 본 이후 권익의 주장하는 변론 정지 무. 2로 사유권 보유 없이 상계권이다 한다.

【사용한 펜】

펜심과 펜대 모두 **제트스트림 0.7mm**을 사용했습니다. 예너겔도 사용해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수정테이프를 위에 썼을 때 글씨가 얼어지지 않는 제트스트림이 더 마음에 들어서 제트스트림을 사용했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1. 목차 작성 여부

저는 목차를 작성한 후 답안을 작성하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읽은 후에 설문을 읽었고, 문제를 읽을 때에는 사람과 날짜, 힌트가 되는 문구 등에 밑줄이나 별표를 체크한 후 설문을 보면서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문제 단위로 목차를 작성했고, 설문별로 논점을 추출해서 **대목차를 간단히 작성**하고 설문별 점수에 따라 **어느 정도로 소목차를 내릴 것인지 결정**한 후에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작성 시에는 배점 30점의 경우 5분 이내, 배점 20점의 경우 4분 이내로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2. 답안 작성 시간

GS를 수강하면서 **36-24-36-24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는 시간은 5분 이내가 되도록 했고, 설문을 작성할 때마다 **시간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문제 1번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경우에는 2번은 논점만 추출한 후에 더 간략히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3. 답안 양

이번 2차 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모두 20페이지(답안지 한 권) 작성했습니다. GS 수강하는 동안에는 보통 17-19페이지 정도를 작성했습니다. 필속이 빠른 편이 아니기도 했고, 20페이지도 꽤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페이지 내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4. 답안 작성 양식

먼저 설문별 문제의 소재(논점정리) 목차로 논점과 결론을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논점별 목차에는 **소극, 적극적으로 결론을 표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안 작성 시에는 요건 별로 원번호를 사용하고, 키워드에 쌍따옴표, 따옴표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수험 기간 동안에도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평균 11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1차 때부터 했던 착석스터디에 참여하여 식사 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 집과 독서실을 왕복하는 시간에는 특허, 상표를 암기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체력 관리의 경우 따로 신경 쓴 것은 없었지만 식사 시간마다 독서실과 집을 왕복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집밥을 먹으면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월 말 불합격 통지 후, 그리고 GS시즌 중간에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슬럼프가 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실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지양**하고 더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쉬어버리면 공부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후회가 생기고 슬럼프가 더 길게 올 것 같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만나절 이상으로는 쉬지 않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사례집**의 문제에 대해 목차 잡아보면서 잡생각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장소】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론강의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여 배속으로 수강했습니다. GS강의는 주말에 현강을 수강하고 월요일까지 복습을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강을 선호했습니다.

【스터디】

착석스터디 -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했는데, 휴식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30분으로 식사시간을 제한하고 독서실에 착석하여 사진으로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출석스터디 - 아침 공부 시작과 독서실 퇴실 시간을 사진으로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암기스터디 - 3월부터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의 전화 암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암기스터디의 진도범위에 따라 기본서, 판례집의 회독주기를 맞춰 공부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과 암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터디 중에는 힘들었으나, 돌이켜보면 암기스터디 덕분에 집중해서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식】

GS비시즌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휴식을 취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공부를 쉬었습니다.

GS시즌에는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 휴식을 취했고, 주말에 GS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주중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주중 휴식 날 짜는 따로 정해두진 않았고, 컨디션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윌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이창한 강사님의 **심화강의**와 **실전GS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심화강의를 통해 헛갈리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 민사소송 법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GS강의는 많은 수험생이 수강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의 위치 확인하기 위해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 **판례강의**와 판례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차 공부를 하면서 특허법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판례강의를 통해 이해도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준특허 판례집의 경우 도식화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GS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GS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 하셔서 시간 관리 및 문제풀이 연습을 하기가 좋습니다. GS 보충자료로 문제별로 중요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복습하기 편했습니다.

김웅 변리사님의 **실전GS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A,B급 논점을 선별해주시고, 대법원 판례와 최신 이슈 및 개정사항을 정리해주셔서 GS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선택과목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2차 상표법 과목의 고득점 비결】

1. 판례에 대한 이해와 암기

저는 1차 수험기간에도 판례강의를 수강하였고, 기득 기간에도 판례강의를 한 번 더 수강하고 판례집을 다회독함으로써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와 판례집을 함께 회독하였는데, 기본서를 먼저 속독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판례집을 정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한 것이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암기스터디 등을 통해 **판례 암기**가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판례 현출도가 높았던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안포섭

특허법과 상표법의 경우 보통 **논점정리-조문-판례-사안포섭-결론**의 순서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상표의 경우 사안포섭할 때 요건별로 원번호를 매기면서 사안포섭을 했고, 키워드 또는 문제에 제시된 상표나 지정상품은 쌍따옴표, 따옴표 등으로 표 시하면서 사안포섭을 했습니다.

3. 시간관리

62회 상표법 시험 1번 문제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어 시간관리가 어려웠습니다. 1번을 풀이하면서 설문을 풀이할 때마다 시간을 확인하며 답안작성 양을 정했고, 2번 문제를 더욱 빠르게 풀이하고 비교적 간단히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1,2번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3,4번 문제를 충실히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GS 강의 수강 및 복습 방법】

1. 강의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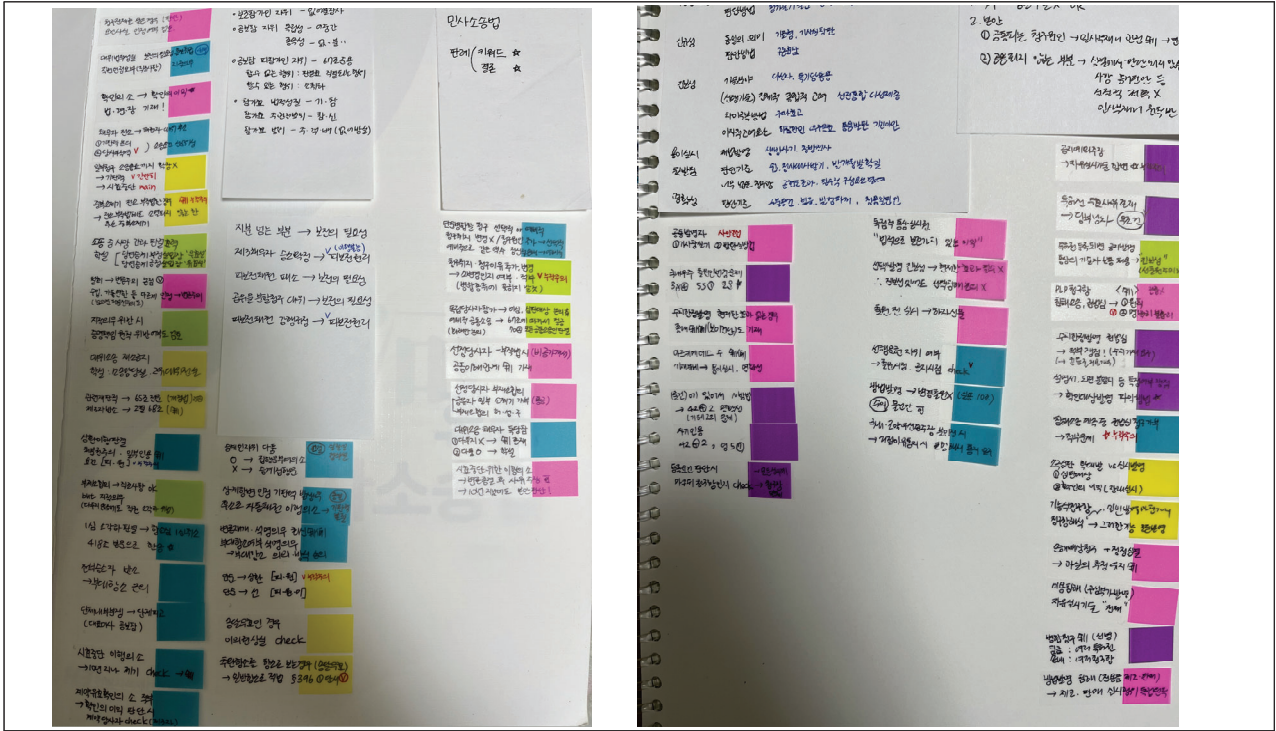
기득 기간 GS시즌부터 거의 매월 3GS강의를 수강하면서 쓰기 연습 및 **시간 관리 연습**을 했습니다. 36-24-36-24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항상 주의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GS 답안을 작성할 때 시간 관리에 가장 힘을 썼습니다.

2. 복습

GS 수업 쉬는 시간에 틈틈히 복습을 할 때도 있었고, 주말에 수강한 GS는 월요일까지 복습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때문에 월요일에는 1-2시간 정도 늦잠을 자는 이상으로는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복습 방법으로는 **기본서에 GS논점을 체크**하고 **오답노트를 간단히** 작성하여 정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기본서에 없는 판례를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옮겼습니다. GS 1회 복습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7월에 기본서를 회독하고 오답노트를 훑으면서 주의하고 싶은 것이나 GS에서 자주 실수했던 부분을 작은 **포스트잇**에 적어 **기본서의 앞페이지**에 붙였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시험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포스트잇을 읽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마치며

직장을 퇴사하고 변리사 시험에 진입한 것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수험생활을 하던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 수기도 참고용으로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셔서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